동네 쓰레기통 된 헌옷 수거함

폐형광등·빈병·담배꽁초·음식물 찌꺼기까지 버려

악취에 분리작업 '골머리'

광주 도심 주택가와 아파트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이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고 있다. 처음 헌옷 수거함이 등장할 때만 해도 재활용 열기와 함께 취지를 잘 살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양심불량 시민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D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이 곳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 주변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빈 병, 담배꽁초, 쓰레기 봉지 등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헌옷 수거함을 열자 악취가 진동했다. 먹다 버린 김치와 밥 등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냄새였다. 쓰레기 더미 속에 셔츠와 치마, 신발 등 쓸만한 옷가지도 눈에 띄었지만, 이를 분류하는 데는 20분 이상 걸렸다.

같은 날 오전 10시20분께 동구 지산동 A원룸 앞.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헌옷 수거함 옆에는 주민들이 몰래 갖다 버린 폐형광등과 빈병, 음식물 찌꺼기 등이 눈에 띄었다. 1.1m 높이의 헌옷 수거함을 뒤덮을 만큼 종량제 봉투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주민 박모(여·55)씨는 "먹다 버린 음식물이며 생활쓰레기는 물론 입다 버린 속옷까지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다. 헌옷 수거함인지 쓰레기통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며 "쓰레기 봉투값이 아까워 찾게 되는 쓰레기통이 돼 버린 셈"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지역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은 모두 1000여개로 수거한 뒤 재활용하거나 불우이웃 등에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 헌옷 수거업체 관계자는 "헌옷 수거함 때문에 쓰레기 불법 투기량이 많아졌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잦다"며 "헌옷 수거함이 쓰레기통인양 마구잡이로 폐품을 내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헌옷 수거함 관리 주체는 수거함을 설치한 장애인협회나 재활용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들이지만, 단순 수거·관리 업무만을 맡고 있는 이들로선 뾰족한 대응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최근 헌옷 수거함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교급식 시설 합동점검

식약청, 28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소, 도시락제조업소를 대상으로 급식시설 및 기구·용기의 세척·소독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음식물 재료와 조리도구의 교차오염 방지, 냉동식품의 위생적 해동관리,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연합뉴스

달라진 대학생 OT

음주문화에서 봉사활동·특강 등으로

저학년부터 취업준비를 하는 추세와 일탈행위를 우려하는 대학 측의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오리엔테이션(OT) 문화가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학 학습과정 및 취업시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특강 실시는 물론 학부모와 함께 자녀 교육을 고민하는 자리, 사회 봉사활동 등 예비 사회인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은 이주부터 다음주 말까지 진행된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시절 배웠지만 전공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수학, 물리, 화학 등을 중심으로 전공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조선대는 문학산책과 한문 등 인문 교양 교육을 중시, 600명에 대해 이미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호남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온 '무알콜 OT'의 기조를 유지하고, 신입생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재학생 선배 멘토제와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대폭 강화했다.

동신대는 수험생 뒷바라지에 애쓴 학부모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10만원 상당의 동신대한방병원 무료진료권을 기증한다.

광주대는 17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연회장에서 신입생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연찬회를 갖는다. 대학과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개개인의 적성을 살린 교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여대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선배들을 초청, 강연 등을 통해 대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모금을 통해 입학식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갖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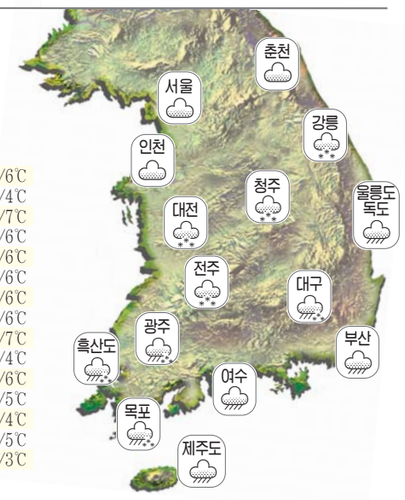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7분 해짐 18시 16분 달뜸 17시 09분 달짐 06시 06분

쟁반같이 둥근 달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비나 눈이 오겠다.

광 주	흐리고가끔비또는눈	1/6℃
목 포	흐리고가끔비또는눈	1/4℃
여 수	흐리고비	4/7℃
나 주	흐리고가끔비또는눈	1/6℃
완 도	흐리고가끔비또는눈	2/6℃
구 례	흐리고가끔비또는눈	1/6℃
해 남	흐리고가끔비또는눈	1/6℃
장 흥	흐리고가끔비또는눈	1/6℃
순 천	흐리고가끔비	3/7℃
영 광	흐리고가끔비또는눈	0/4℃
진 도	흐리고가끔비또는눈	2/6℃
전 주	흐리고가끔눈	1/5℃
군 산	흐리고가끔눈	0/4℃
남 원	흐리고가끔비또는눈	1/5℃
흑산도	흐리고가끔비또는눈	1/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00:52 13:42	06:30 19:08
여수	08:38 20:47	02:08 14:4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날 씨						
최저/최고	-2/9	0/8	-1/9	0/10	1/10	2/10

광주 동구 41개 경로당

3월부터 대대적 개보수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는 오는 3월부터 지역내 41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새단장할 계획이다.

16일 동구는 "9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41개소에 보수가 필요했다"며 "예산 1억2000여만원을 들여 오는 3월부터 개보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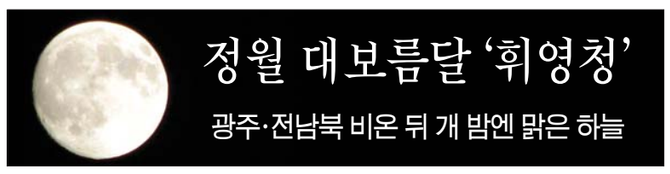
2월 전수조사 결과, 충장동 대금경로당 등 8개소는 도배·장판 노후, 산수1동 정암경로당 등 8개소는 지붕·건물 누수, 학운동 삼익부녀경로당 등 11개소는 비품 미비, 지원2동 화산경로당 등 14개소는 창문·보일러·차양 노후 등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동구는 68명의 경로당 도우미사업 참여자들이 매주 3회 경로당을 순회해 무료급식 보조와 환경정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11개 경로당에는 인터넷 사용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졸업은 즐거워" 16일 오전 열린 서강정보대학 2011년 졸업식에서 유아교육과 졸업생과 교수들이 졸업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기원하며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월 대보름달 '휘영청'

광주·전남북 비온 뒤 개 밤엔 맑은 하늘

정월 대보름인 17일 광주와 전남·북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휘영청 둥근 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17일 광주와 전남·북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또는 눈(강수확률 80%)이 내린 후 오전에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다"며, "오후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을 것"이라고 16일 예보했다.

정월 대보름 달은 지역별로 오후 5시 6분에서 16분 사이 뜰 것으로 보이며 달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남중 시각은 광주가 18일 0시 2분, 여수 17일 오후 11시 58분, 순천 17일 오후 11시 59분, 목포·완도 18일 0시, 전주 18일 0시 1분 등이다.

한편, 17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북 내륙 지방의 예상 적설량은 1~3㎝, 예상 강수량은 5~10㎜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4도, 낮 최고기온은 3도~8도로 전망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50년 분쟁' 끝나나

재산관리권 공동인수 합의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을 놓고 50여년간 계속된 조계종과 태고종 간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태고종과 조계종은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종단은 앞서 지난 9일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분규를 끝내자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조계종 측 선암사 주지인 덕문 스님과 태고종 측 선암사 주지인 경담 스님이 공동인수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덕문 스님은 "분규로 인해 법원 판결이 아닌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재산관리인을 임명한 것인 만큼 분규가 종식됐는데도 국가에서 계속 재산관리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양 종단이 합의하면 재산관리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두 종단은 앞으로 재산 관리권 인수 후 관리와 운영 방법에 대해 매월 두 차례씩 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한편 부동산과 사찰 소유 성보문화재 등 재산 상황도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봉원사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도 원만히 마무리 했다/연합뉴스

축제일정·행사장 날씨정보 한눈에

광주기상청 홈피 서비스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축제일정과 행사장 날씨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광주지방기상청(청장 최치영)은 축제를 찾는 시도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축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2011년 호남지역 축제·행사장 날씨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광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http : //gwangju.kma.go.kr) 메인화면에 있는 '호남지역 축제·행사장 날씨정보'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올해 12월 말까지 제공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